

자원봉사 수만여명 폭염 속 수해복구 구슬땀

광주·전남 수해현장 봉사 손길
육·해·공 3군 장병 2300여명
경찰·공무원·자원봉사자 등
토사·쓰레기 제거·시설물 정비

광주·전남지역 수해복구를 돕기 위한 자원봉사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과 폭염으로 복구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군인, 경찰, 공무원, 자원봉사자 등 수만여명이 수해현장을 찾아 피해 복구에 구슬땀을 흘렸다.

수해복구 현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도우미들은 군 장병들로, 31사단을 중심으로 특전사, 공군 1전비, 해군 3함대, 해병 1사단 등 육·해·공 3군 장병 2300여명은 수해피해 지역에 팔을 걷어붙였다.

이들은 임시공휴일인 17일에도, 광주와 전남 구례·곡성·담양·장성·영광·나주 등에서 주택가로 쏟아진 토사와 쓰레기를 제거하고 비닐하우스 등 파손된 시설물을 정비하면서 수해로 실의에 빠진 지역 주민들에게 힘을 실어 주었다.

31사단은 8월을 '재난극복의 달'로 정하고 지난 10일부터 곡성·담양, 광주 등 6개 시·군에 가용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 대민 지원에 나서고 있다.

경북 포항에 있는 해병대 1사단 신속기동부대로 수해 피해지역인 구례를 찾아 수해 복구 지원 활동을 펼쳤다.

해병대 1사단 신속기동부대 소속 160여명은 지난 14일부터 구례를 찾아 대형굴삭기 등을 동원해 마을에 떠나려온 쓰레

기를 수거하고 침수된 주택을 방역하는 한편, 휘어지고 못 쓰게된 비닐하우스 폐기물을 처리하면서 재해 복구를 도왔다.

공군 제1전투비행단은 지난 13일부터 광산구 임곡·신창동, 삼도동을 찾아 하우스와 배수로 정비 작업 등을 펼쳤다.

전남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50여명도 지난 14일 담양 관방천 일대에서 수해복구 봉사활동에 나섰다. 이들 경찰들은 관방천 부유물을 수거하고 하천변에 쌓인 폐기물을 제거하는 데 구슬땀을 흘렸다.

민간기업, 자원봉사단체 등도 수해지역

을 찾아 피해를 입은 지역민들과 함께하면서 힘을 보태는가 하면, 온정의 손길도 이어지고 있다.

17일 구례군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피해지역을 찾아 봉사활동에 나선 공무원, 자원봉사자 등은 모두 1만 2737명에 이른다. 또 임시공휴일인 17일에도 1429명의 민간 자원봉사자들이 찾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구례군의사회는 지난 14일 구례군 오일시장 상인회 사무실 앞에서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일반 진료는 물론 자신의 전문

진료 분야인 재활의학, 안과 진료 등 의료봉사를 했고 순천시 의사회도 오는 20일까지 야간 의료봉사를 진행중이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노사는 지난 14~15일 이동식 밥차를 몰고 구례군 마산면 수해피해 복구현장을 찾아 '따뜻한 밥상' 나눔에 나섰다, 대구에 산다는 30대 남성 이창환씨는 코로나19 확산 때 전남지역에서 받은 도움을 잊지 못하며 구례군에 생수(6만원)와 라면 한 박스를 보내고 격려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17일 오전 폭우로 인해 침수피해를 겪은 나주시 다시면 죽정마을에서 나주시청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대신해 침수된 집기들을 씻으며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코로나 병상나눔 이어 수해복구로 하나된 영호남

담양·구례·나주 등 수해지역

대구·울산·거제 등서 성금·물품

코로나19 병상나눔으로 서로의 아픔을 보듬었던 영·호남이 이번엔 수해 복구로 하나가 됐다. 사상 최악의 물난리로 여러 명이 숨지고 수천억 원이 훌쩍 넘는 재산피해를 입은 구례와 곡성·담양 등지에는 영남지역 곳곳에서 온 인력과 장비는 물론 구호물품까지 따뜻한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600mm가 넘는 기록적 폭우로 1000명의 이재민과 1500억원대 재산피해가 발생한 담양에는 지난 14일 자매도시 대구 달성에서 '피해복구에 써 달라'며 보내온 성금 1000만원과 1100만원 상당의 물품이 도착했다.

대구 달성군 복지재단도 1400만원 상당

의 품블록 벽지 80박스와 여름이불 700재를 기부하며 수해 극복을 응원했다.

담양군과 대구 달성군은 1984년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후, 매년 양 지자체 행사에 방문해 동서화합에 기여하며 다방면에서 교류하고 있다. 올해 3월에는 대구 달성군에 코로나19 구호성금과 물품을 보내며 돈독한 협력관계를 재확인했다.

지난 2016년 10월 태풍 '차바'로 큰 수해를 입었던 울산 중구도 구례에서 수해복구에 힘을 보탰다.

박태완 중구청장과 명일식 중구체육회장 등 40여 명은 지난 14일 최악의 물난리를 겪은 구례 오일장을 찾았다. 수해 피해의 처참함을 겪어 봤던 이들은 구례의 집중호우 소식을 접하자 긴급하게 회의를 갖고, 피해복구에 동참하기로 결정한 뒤 이날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렸다.

이에 앞서 구례와 자매도시인 경남 거제시 역시 구례를 찾아 주민들과 아픔을 함께 나눴다. 두 지자체는 1998년 자매결연을 맺었다.

변광용 거제시장과 공무원, 거제시공회 의소, 거제시체육회, 호남향우회 소속 거제시민 등 160여명은 지난 13일 구례군 수해 현장에서 자원봉사를 했다. 거제시는 이불 120채, 세면도구 600개, 라면 130박스, 휴지 90박스, 생수 400통과 성금도 전달했다.

한편, 경남 김해시는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본 자매도시 나주시에 지난 14일 긴급 구호 물품을 전달해 훈훈한 감동을 줬다. 구호품은 김해시 수돗물 브랜드 찬새미 6000병, 라면 2400개, 생활용품 200여 세트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전남 2학기 전면등교 조정 불가피

“코로나19 추이 보고 결정”

서울·경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광주·전남지역 학교들의 등교 일정과 방식이 일부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에 비해 확산세가 가파르지는 않지만, 등교 일수를 대폭 늘리기는 어려운 상황인 만큼 학사일정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17일 광주·전남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남 교육부가 수도권 유·초·중학교의 경우 등교 인원을 전체의 3분의 1(고교는 3분의 2), 비수도권의 경우 3분의 2로 제한하기로 한 것과는 달리 이달 말까지는 일단 등교·원격수업을 병행하기로 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다음 달 1일부터는 전면 등교 방침을 세웠는데 교육부가 9월 11일까지 등교 인원을 3분의 2 이하로 유지하도록 강력히 권고함에 따라 이를 지

키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며 “코로나19 상황을 보고 9월 1일 이후 등교 방식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도 교육청 역시 18일부터 유치원, 초·중·고는 애초 계획대로 전면 등교를 하기로 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전면 등교 방식을 변경할 가능성은 열어뒀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도시보다 농산어촌 학교는 원격수업으로 인한 학력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개학하는 18일부터 전면 등교하기로 한다”며 “교육부 권고와 타 시도교육청 상황 등을 고려해 전면 등교 방침이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은 19일 회의를 열어 2학기 세부 학사일정과 원격수업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경찰청 총경급 256명 전보 인사

광주경찰청 홍보담당관 장명본

전남경찰청 홍보담당관 장진영

경찰청은 광주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으로 장명본 총경, 전남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으로 장진영 총경을 발령하는 등 총경급 256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인사명단 21명>

광주지방경찰청에서는 조규향 광주청 보안과장이 광주 남부서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문병훈 경비교통과장은 여수서장으로, 문병호 생활안전과장이 해남서장, 김찬수 경무과장은 완도서장, 이인영 여성청소년과장은 전북 임실서장으로 각각 발령났다. 또 광주청 경무과장에 김선우 강진서장이, 정보화장비과장으로 황석현 남부서장, 보안과장에 김범상 완도서장, 생활안전과장은 백형석 화순서장이 발령났

다. 광주청 여성청소년과장은 고은경 총경, 광주청 경비교통과장은 류재혁 총경이 맡게됐다.

전남지방경찰청의 경우 박인배 전남청 홍보담당관이 목포서장으로, 조영일 형사과장은 순천서장, 김중호 경비교통과장은 영광서장, 김진천 정보과장은 고흥서장, 임옥성 과학수사과장은 영광서장, 임경철 112종합상황실장이 화순서장으로 각각 자리를 옮겼다.

또 전남청 경무과장에 김영근 목포서장, 정보과장은 차복영 보성서장, 여성청소년과장에 윤호의 경기남부 화성서부서장, 보안과장은 장익기 광주청 정보화장비과장, 112종합상황실장으로는 서태규 총경, 형사과장에 송세호 총경, 과학수사과장으로 고영재 총경, 경비교통과장은 김신조 총경으로 발령났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 학원 불법·편법행위 신고포상 ‘시들’

교습비 과다 징수나 교습시간 위반, 무등록 학원 운영 등 학원의 불법·편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신고포상제'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줄지 않은 학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7일 광주시교육청과 시민단체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등에 따르면 학원 불법행위 신고로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2015년 32건에서 2016년 6건으로 크게 줄더니, 2017년과 2018년에는 아예 단 한 건도 없었다. 지난해에도 1건에 불과했다.

신고포상 건수가 이처럼 줄어든 것은 한동안 광주지역 학원가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던 전문신고자(일명 학파라치)의 활동이 미미해진데다 신고 건 수 자체도 해마다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신고 사례가 줄면서 관련 예산도 2015년 1650만원이었으나 최근 4년 연속 연간 400만원만 책정됐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학원의 불법행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만큼 신고포상제가 제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교육 당국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고객상담센터 062-412-2800

자연이 준 삶 자연으로 돌려주세요

세상이 변하듯 ... 장묘문화는 수목장이 대세입니다.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보성군 소재

(순천, 화순, 나주, 여수, 광양, 고흥군, 장흥군)

수목장 * 자연장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10기 이상 선산도 가능합니다.